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주요 상권은 총 146개(사업체수 1,000개 이상인 읍면동 기준)로 조사되었다. 부산이 7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57개, 울산 19개 순으로 나타났다.

상권 성장단계별로는 성장상권이 63개로 가장 많고 정체상권은 59개, 쇠퇴상권은 24개로 파악되었다. 부산의 경우 성장상권 비중이 38.6%, 정체상권은 35.7%, 쇠퇴상권은 25.7%로 조사되었다. 울산 및 경남은 성장상권 비중이 각각 47.4%로 부산에 비해 높은 반면 쇠퇴상권의 경우 경남이 10.5%, 울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권의 업종별 특화도(LQ)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상권은 쇼핑업, 숙박업, 카페업, 이미용업 특화도가 높았고 경남은 주점업, 여가업, 교육업에 특화된 상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의 경우 업종별 특화도가 높은 상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는 확진자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정체 및 쇠퇴 상권에 대한 재개발, 재정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남권 주요 상권 146개

성장상권 43.2%, 정체상권 40.4%, 쇠퇴상권 16.4% 비중 차지

동남권 주요 상권은 총 146개로 조사되었다¹⁾. 본 연구의 주요 상권은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6개 업종의 사업체수가 1,000개 이상인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²⁾. 지역별 상권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이 7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57개, 울산 19개 순으로 나타났다.

상권 성장단계별(성장-정체-쇠퇴)로는 성장상권이 63개로 가장 높은 4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체상권은 59개(40.4%), 쇠퇴상권은 24개(16.4%)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성장상권의 경우 울산 및 경남 비중이 부산에 비해 높았으며 쇠퇴상권 비중은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주요 상권 현황

(개, %)

구분	성장 상권수	정체 상권수	쇠퇴 상권수	합계
동남권	63 (43.2)	59 (40.4)	24 (16.4)	146 (100.0)
부산	27 (38.6)	25 (35.7)	18 (25.7)	70 (100.0)
울산	9 (47.4)	10 (52.6)	0 (0.0)	19 (100.0)
경남	27 (47.4)	24 (42.1)	6 (10.5)	57 (100.0)

주 : ()내는 비중
자료 : 통계청

주요 상권 성장단계 분류 기준

구분	내 용
성장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수가 평균치 이상 늘어난 상권 · 2010년 사업체수가 1,000개 미만 이었으나 2018년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한 상권
정체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수가 늘어났으나 지역별 사업체수 증감의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한 상권
쇠퇴 상권	· 2010년 대비 2018년 사업체수가 감소한 상권

주 : BNK금융경영연구소 자체 분류

1) 2018년말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읍면동 기준 상권(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따름) 현황

2)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6개 업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① 도매및소매업 ② 숙박및음식점업 ③ 부동산업 ④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⑤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⑥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상권 사업체수 연평균 2.0% 증가

동남권 상권 사업체수는 2010년 22만 6천개에서 2018년 26만 5천개로 연평균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은 같은기간 10만 6천개에서 12만 1천개로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은 3만개에서 3만 6천개, 경남은 9만개에서 10만 8천개로 각각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사업체수가 연평균 4.8%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5%, 숙박및음식점업 2.0% 순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도매및소매업(1.8%),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5%), 기타개인서비스업(1.3%)의 경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부동산업과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사업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수중 다수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부산은 1.6% 증가에 그쳤으나 울산과 경남은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주요 상권 사업체수 증가율

(개, %)

구분	2010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동남권	226,316	264,879	2.0
부산	105,762	120,765	1.7
울산	30,183	36,070	2.3
경남	90,371	108,044	2.3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주요 상권 업종별 사업체수 증가율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도매및소매업	1.8	1.6	2.1	2.0
숙박및 음식점업	2.0	1.6	2.3	2.2
부동산업	4.8	5.1	5.6	4.3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3.5	4.2	3.4	3.0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	1.2	1.5	1.9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3	0.4	1.7	2.2

주 : 2010~18년중 연평균 증가율 기준

자료 : 통계청

부산, 성장상권 38.6%, 정체상권 35.7%, 쇠퇴상권 25.7%

부산지역 구군중 가장 많은 상권이 입지한 곳은 해운대구(8개)로 나타났다. 동래구, 부산진구는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은 7개의 상권이 밀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장군, 서구, 영도구의 경우 지역내 상권이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성장상권이 27개로 지역 전체상권 70개중 3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장상권의 경우 읍면동 기준으로 우1·3동³⁾, 우2동, 재송1동, 좌1동, 좌2동 등 해운대구(5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고급 주거지, 대형 백화점, 공공기관, 첨단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입주⁴⁾한 것과 해운대 신도시의 안정적 수요 등이 상권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해운대구 다음으로는 강서구에 가장 많은 4개(녹산동, 대저1동, 대저2동, 명지1·2동⁵⁾)의 성장상권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부산유통지구 개발, 명지 오션시티 및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등의 긍정적 영향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상구, 서구, 영도구에는 성장상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체상권은 25개로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당감1동, 범천1동, 양정1동, 전포2동)와 사하구(다대1동, 당리동, 장림2동, 하단1동)가 각각 4개로 정체상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상구(괘법동, 엄궁동, 학장동)와 연제구(거제1동, 연산4동, 연산9동), 중구(광복동, 남포동, 부평동)가 각각 3개로 조사되었다.

3) 해운대구 우1동이 2016년 우1동과 우3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1·3동으로 표기

4) 마린시티는 해운대 아이파크(2011년), 두산위브더제니스(2011년) 등 대형 아파트 입주, 파크하얏트(2013년) 등 고급 숙박시설 개관이 상권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센텀시티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2007년), 신세계 센텀시티점(2009년)이 개점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2013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이 집적하면서 상권이 크게 활성화

5) 강서구 명지동이 2018년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명지1·2동으로 표기

쇠퇴상권은 18개로 25.7%의 비중을 보였다. 동래구(수민동, 온천1동, 온천2동)와 금정구(남산동, 서3동, 장전3동⁶⁾)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권 지형이 변화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구 수정2동과 초량3동, 영도구 남향동 등 구도심 지역도 쇠퇴상권으로 분류되었다.

부산 주요 상권 현황

구분	상권수	성장	정체	쇠퇴
해운대구	8개	우1·3동, 우2동, 재송1동, 좌1동, 좌2동	반여1동, 중1동	반송1동
동래구	7개	명륜동, 안락2동	안락1동, 온천3동	수민동, 온천1동, 온천2동
부산진구	7개	부전2동, 전포1동	당감1동, 범천1동, 양정1동, 전포2동	부전1동
사하구	6개	하단2동	다대1동, 당리동, 장림2동, 하단1동	괴정3동
사상구	5개	—	괘법동, 엄궁동, 학장동	감전동, 모라1동
수영구	5개	남천1동, 민락동	광안2동, 수영동	망미1동
연제구	5개	연산1동, 연산5동	거제1동, 연산4동, 연산9동	—
강서구	4개	녹산동, 대저1동, 대저2동, 명지1·2동	—	—
금정구	4개	구서1동	—	남산동, 서3동, 장전3동
북구	4개	덕천2동, 화명3동	—	구포1동, 구포2동
중구	4개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
남구	3개	대연3동, 용호1동	대연1동	—
동구	3개	범일2동	—	수정2동, 초량3동
기장군	2개	기장읍, 정관읍	—	—
서구	2개	—	암남동	충무동
영도구	1개	—	—	남향동
부산 전체	70개	27개 (38.6%)	25개 (35.7%)	18개 (25.7%)

6) 금정구 장전3동은 2020년 1월 장전2동으로 통합

울산, 성장상권 47.4%, 정체상권 52.6%, 쇠퇴상권 없어

울산 구군중 상권 최다 밀집지역은 남구(8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울주군과 중구가 4개, 북구 2개, 동구 1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장단계별로는 정체상권이 10개로 상권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성장상권은 9개(47.4%)이며 쇠퇴상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상권 9개는 울주군 3개, 남구, 중구, 북구에 각각 2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범서읍, 온산읍, 온양읍)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 단지 설립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상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구(병영1동, 태화동)는 태화강 주변 개발 및 먹거리 상권 활성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밀집한 남구의 삼산동은 고속버스터미널, 대형 백화점이 입지하고 있어 안정적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⁷⁾. 또한 신정2동도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상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체상권은 10개 중 6개가 남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울주군 언양읍, 중구 중앙·성안동과 다운동, 동구 방어동 상권도 성장세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 주요 상권 현황

구분	상권수	성장	정체	쇠퇴
남구	8개	삼산동, 신정2동	달동, 무거동, 삼호동, 신정1동, 신정4동, 야음장생포동	-
울주군	4개	범서읍, 온산읍, 온양읍	언양읍	-
중구	4개	병영1동, 태화동	중앙·성안동, 다운동	-
북구	2개	농소1동, 효문동	-	-
동구	1개	-	방어동	-
울산 전체	19개	9개 (47.4%)	10개 (52.6%)	-

7) 울산 남구 삼산동 상권은 동남권 최대 상권일뿐만 아니라 사업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업체수는 2010년 5,804개에서 2018년 7,253개로 1,449개 늘어났음

경남, 성장상권 47.4%, 정체상권 42.1%, 쇠퇴상권 10.5%

경남은 창원시에 가장 많은 21개의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진주시(9개), 김해시(7개) 순이다. 상권 성장단계별로는 성장상권이 27개로 4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체상권 24개(42.1%), 쇠퇴상권 6개(1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상권은 창원시가 내서읍, 반송동, 북면 등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에는 동면, 물금읍, 삼성동 등 5개, 김해시는 내외동, 북부동 등 4개, 진주시는 가호동, 초장동 등 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성장상권의 발전 요인으로는 주거·쇼핑·체육시설 설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⁸⁾

경남 주요 상권 현황

구분	상권수	성장	정체	쇠퇴
창원시	21개	내서읍, 반송동, 북면, 봉림동, 산호동, 석동, 양덕2동, 웅동2동, 의창동, 중앙동, 팔룡동	가음정동, 명곡동, 사파동, 상남동, 오동동, 용지동, 월영동, 합성2동	석전동, 충무동
진주시	9개	가호동, 초장동, 평거동	상평동, 성북동, 하대동	상대동, 중앙동, 천전동
김해시	7개	내외동, 북부동, 장유1~3동, 진영읍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양산시	6개	동면, 물금읍, 삼성동, 서창동, 양주동	중앙동	-
거제시	3개	-	고현동, 옥포2동, 장평동	-
통영시	3개	광도면, 무전동	중앙동	-
기타	8개	사천시 사천읍, 함안군 가야읍	거창군 거창읍, 고성군 고성읍, 남해군 남해읍, 밀양시 내이동, 창녕군 창녕읍, 함양군 함양읍	-
경남 전체	57개	27개 (47.4%)	24개 (42.1%)	6개 (10.5%)

주 :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은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8)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및 의창구 팔룡동·의창동·봉림동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상업지구 규제완화, 다세대주택허용, 근린생활시설 완화 등), 웅동2동·내서읍은 아파트 단지 입주 등에 따른 인구 증가, 산호동의 경우 인근지역 야구장 신축 및 대형쇼핑몰 설립 등이 상권 활성화의 요인으로 지목

상권의 업종별 특화도 분석결과

부산은 쇼핑·숙박·카페·이미용, 경남은 주점·여가·교육에 특화

동남권 상권중 음식점업에 특화된 상권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울산 울주군 온산읍, 경남 양산시 물금읍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권에 입지한 업종의 특화도를 의미하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점업의 경우 특화도가 높은 10개 상권중 6개가 창원시 오동동, 진주시 성북동 등 경남지역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영도구 남항동, 중구 부평동 등 4개로 조사되었다. 숙박업 특화도가 높은 10대 상권에는 부산 7개, 경남 3개 상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서구 암남동, 해운대구 우1·3동, 동래구 온천1동의 경우 특화도 순위에서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쇼핑업 최대 특화상권은 부산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광복동, 동구 범일2동, 부산진구 범천1동의 특화도가 높았다. 울산은 중구 중앙·성안동, 경남은 진주시 중앙동이 쇼핑업 특화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카페업의 특화도가 높은 상권은 부산 6개, 경남 3개, 울산 1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수영구 광안2동, 경남은 진주시 가호동, 울산은 북구 효문동이 높았다.

여가업 특화도가 높은 1~3위 상권은 경남 창원시의 봉림동, 합성2동, 상남동 등 모두 경남 상권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남구 대연3동, 울산은 남구 삼산동이 여가업 특화도가 높은 상권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용업 특화상권은 부산이 해운대구 좌2동, 금정구 장전3동 등 7개로 가장 많았다. 경남의 경우 김해시 삼안동, 내외동 등이 이미용업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 특화도가 높은 상권은 경남이 창원시 반송동, 진주시 평거동, 양산시 양주동 등 6개로 가장 많았다. 부산의 경우 북구 화명3동, 울산은 남구 신정2동이 교육업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특화도 상위 10대 상권

구분	음식점	주점	쇼핑	숙박
1	부산 강서구 녹산동 (1.85)	부산 영도구 남항동 (2.73)	부산 중구 광복동 (5.22)	부산 서구 압남동 (4.70)
2	울산 울주군 온산읍 (1.46)	부산 중구 부평동 (2.57)	부산 동구 범일2동 (4.78)	부산 해운대구 우1·3동 (4.35)
3	경남 양산시 물금읍 (1.40)	경남 창원시 오동동 (2.34)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2.67)	부산 동래구 온천1동 (3.97)
4	경남 창원시 웅동2동 (1.38)	경남 진주시 성북동 (2.22)	울산 중구 중앙·성안동 (2.65)	경남 진주시 성북동 (3.37)
5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35)	경남 창원시 합성2동 (2.20)	경남 진주시 중앙동 (2.56)	경남 김해시 부원동 (3.33)
6	경남 통영시 광도면 (1.33)	경남 창원시 봉림동 (2.06)	부산 금정구 장전3동 (2.34)	부산 수영구 광안2동 (3.27)
7	경남 거제시 장평동 (1.33)	경남 창원시 상남동 (1.91)	부산 해운대구 우2동 (2.30)	경남 통영시 무전동 (2.90)
8	울산 북구 효문동 (1.30)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4)	부산 중구 남포동 (2.26)	부산 사상구 괘법동 (2.84)
9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27)	부산 사하구 하단2동 (1.61)	부산 사상구 괘법동 (2.19)	부산 북구 구포1동 (2.83)
10	부산 기장군 기장읍 (1.23)	경남 거제시 고현동 (1.51)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00)	부산 해운대구 중1동 (2.77)
구분	카페	여가	이미용	교육
1	경남 진주시 가호동 (2.17)	경남 창원시 봉림동 (2.57)	부산 해운대구 좌2동 (1.80)	부산 북구 화명3동 (2.76)
2	부산 수영구 광안2동 (2.15)	경남 창원시 합성2동 (2.32)	경남 김해시 삼안동 (1.54)	부산 해운대구 좌2동 (2.56)
3	부산 남구 대연3동 (2.05)	경남 창원시 상남동 (2.15)	부산 금정구 장전3동 (1.54)	경남 창원시 반송동 (2.45)
4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2.03)	부산 남구 대연3동 (1.90)	경남 김해시 내외동 (1.49)	경남 진주시 평거동 (2.39)
5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79)	경남 창원시 월영동 (1.81)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1.45)	울산 남구 신정2동 (2.06)
6	경남 양산시 물금읍 (1.76)	부산 사하구 하단2동 (1.68)	부산 사하구 당리동 (1.41)	경남 양산시 양주동 (2.02)
7	부산 중구 중앙동 (1.73)	부산 사상구 모라1동 (1.68)	경남 양산시 서창동 (1.40)	경남 창원시 사파동 (1.99)
8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51)	울산 남구 삼산동 (1.64)	부산 연제구 연산4동 (1.39)	경남 김해시 북부동 (1.97)
9	경남 창원시 용지동 (1.50)	부산 사상구 괘법동 (1.62)	부산 금정구 남산동 (1.37)	경남 김해시 장유동 (1.90)
10	울산 중구 중앙·성안동 (1.38)	경남 창원시 용지동 (1.52)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36)	부산 수영구 남천1동 (1.86)

주 : ()는 입지계수(LQ) = (a상권 i업종 사업체수 / a상권 전업종 사업체수) /
(동남권 전체상권 i업종 사업체수 / 동남권 전체상권 전업종 사업체수)

자료 :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발전전략 중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의 서면, 연산, 사상, 남포, 동래 등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는 확진자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운대의 경우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유동인구는 예년의 28.6%까지 급감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상권의 생태계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의 실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금융지원, 물품기부 등 다양한 지원노력의 범위와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남권 상권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성장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정체 및 쇠퇴 상권에 대한 재개발, 재정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부산 주요 상권 유동인구 현황

(명, %)

구분	확진자 발생 이전(A)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급증 이후(B)	(B)/(A)
서면	150,937	133,637	51,079	33.8
연산	61,755	57,411	26,806	43.4
사상	46,033	41,938	18,231	39.6
남포	43,568	36,990	16,628	38.2
동래	43,490	40,125	15,307	35.2
하단	38,634	35,969	16,796	43.5
덕천	36,852	34,385	16,280	44.2
경성대부경대	32,854	30,066	11,998	36.5
부산대	32,063	29,504	10,486	32.7
해운대	29,590	23,411	8,477	28.6

주 : 확진자 발생 이전(1.1일~1.19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1.20일~2.21일),

확진자 급증 이후(2.22일~3.1일 현재)

자료 : 지하철역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부산교통공사)

[참고문헌]

광주전남연구원,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광주지역 상권분석 연구”, 2018.12

딜로이트, “골목상권에 열광하는 소비자로 보는 국내 상권의 미래”, 2019.6

이강배,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지역 소매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9.6

현대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경제 파급 영향”, 2020.1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편)”, 2019.12

부산교통공사, humetro.busan.kr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통계청, www.kosis.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同苦同樂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온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범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3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3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